

계열문항 1

<가>

공공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비배제성과 한 사람이 소비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소비기회가 줄지 않는 비경합성을 지닌 재화를 말한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공공재인 지구환경은 국가들의 남용으로 지구온난화 위기에 직면하고 있지만 국가들이 서로 협력하여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 게임이론에서 용의자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라고 부르는 <표>의 상황이 이를 시사하고 있다.

<표> 공유자원의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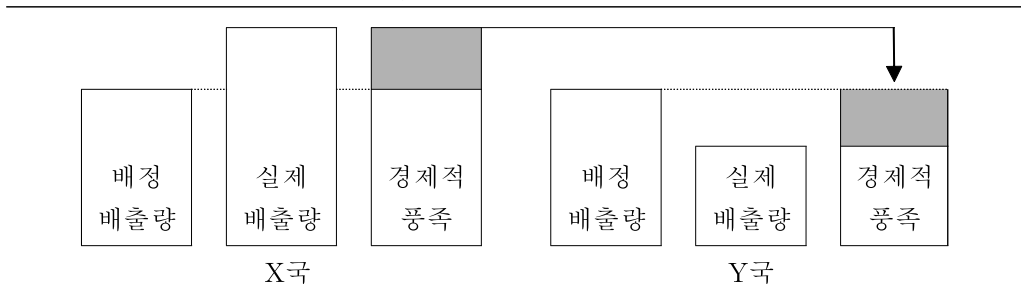
		B	
		협조	비협조
A	협조	4, 4	-10, 5
	비협조	5, -10	0, 0

A와 B가 공동으로 어떤 자원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자. A와 B가 서로 협조하여 최적의 자원만을 이용할 경우는 자원 이용으로부터 각각 4의 순편익을 얻게 된다. 둘 다 자신만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둘 다 0의 순편익을 얻게 된다. 반면 A가 집단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협조하여 자원 이용을 자제함에도 B가 여전히 자신만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할 경우, B는 A가 이용하지 않고 남긴 자원까지도 이용할 것이다. 이 경우 A는 스스로 이용을 자제하여 손해를 볼 뿐 아니라, B가 비협조적으로 행동하여 집단 전체의 자원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까지도 보게 된다. 그 결과 A는 -10의 순편익을 얻고 B는 5의 순편익을 얻게 된다. 반대로 A가 비협조적이고 B가 협조적일 경우 순편익은 각각 5와 -10이 된다. A와 B가 상대방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각자 자신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각 개인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게임이론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전략이 한 가지뿐이라면 그 전략을 우월전략이라고 한다.

<나>

온난화 방지를 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된 '배출권 거래'가 국가 간의 조약으로 결실을 보았습니다. 온난화가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 억제가 전 지구적 차원의 긴급한 과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정하려는 구상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배출권거래제**입니다. 1997년에 제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배출 총량을 정하여 각국에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분배하는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교토의정서'라는 국제환경조약입니다. 이 의정서는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배출량 한도를 설정하고, 국가들은 그 한도만큼의 배출권을 갖게 됩니다. 국가들이 배정받은 한도를 초과하여 온실가스를 배출한 경우는 다른 국가가 가진 배출권 일부를 구매하여 조약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래 <그림>과 같이 구조화할 수 있습니다.

<그림> 배출권 거래의 구조



X국과 Y국이 동일한 양의 배출권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두 국가가 환경파괴를 초래할 권리는 동일합니다. X국은 경제적 풍족을 실현하려는 목적에서 할당된 배출권을 초과하여 온실가스를 배출

하고 있습니다. Y국은 실제 배출량이 할당된 배출권보다도 적어서 경제적 풍요가 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배출권에 관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X국이 더 풍족하게 되고, 약속을 지킨 Y국은 덜 풍족하게 되어 불평등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불평등은 X국이 초과 배출로 얻은 풍족의 초과분을 Y국에 경제적으로 보상해준다면 해소될 것입니다. 이러한 배출권의 설정과 거래는 교토의정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이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국가가 준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

유럽은 산업혁명의 기원지로 기후 위기의 시발점이면서, 그 위기에 가장 빨리 대응하고 있다. 유럽 국가 중 핀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탄소세’를 부과했다. 탄소세는 제품을 만들 때 직접 배출하는 탄소량에 부과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 생산 공정에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하는 탄소량에 부과하기도 한다. 탄소를 대상으로 한 배출권거래제를 가장 먼저 도입한 곳도 2005년 유럽연합이었다. 이후 세계 각국 정부가 탄소세와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최근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유럽연합 내에서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 누출 방지를 명분으로 **탄소국경조정제**를 도입하려고 한다. 탄소국경조정제는 유럽연합 밖에서 생산돼 유럽연합 내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대해 수입자가 탄소국경조정 인증서를 구매하도록 하는 조치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업자는 2023년부터 연간 수입하는 양의 직접 탄소 배출량에 비례해 탄소국경조정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다만 탄소국경조정 대상 제품의 탄소 비용이 원산지 국가에서 지불된 경우, 해당 제품의 수입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감면을 요청할 수 있다.

유럽연합이 촉발한 탄소국경조정제 논의로 인해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상향하거나 유사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어느 국가든 자국 기업이 탄소 비용을 다른 나라에 지불하도록 두는 것보다는 자국에서 거두는 방안을 선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 국가들이 탄소국경조정제로 정해지는 가격보다 높게 책정한 탄소 비용을 자국 내에서 내게 하고 이를 통해 조성한 재원을 다시 탄소 배출 감축에 투자한다면, 선순환 효과가 생기게 될 것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탄소국경조정제 아이디어가 나온 것은 중요한 이정표”라고 치켜세웠다.

1-1. <가>를 활용하여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이유를 요약하시오. (300±30자)

1-2. <가>의 상황에서 <나>의 배출권거래제와 <다>의 탄소국경조정제가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는 방식을 비교하시오. (600±60자)

계 열 문 항 2

<가>

프레임은 인간이 실재를 이해하도록 해주며 때로는 우리가 실재라고 여기는 것을 창조하도록 해주는 정신적 구조로서 언어를 통해 인식된다.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과 우리가 짜는 계획, 우리의 행동 방식과 그 결과의 옳고 그름을 결정한다. ‘인지과학개론’ 수업에서 프레임에 관한 강의를 시작하기 전, 나는 학생들에게 과제 하나를 내준다. 어떤 일을 하든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 과제에 성공한 학생을 나는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 다른 모든 낱말이 그렇듯, ‘코끼리’도 그에 상응하는 프레임을 환기한다. 그것은 어떤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특정한 지식이 될 수도 있다. 가령, 몸집이 크고, 퍼덕이는 귀와 긴 코를 가지고 있고, 밀림에 서식하고, 서커스와 연관되어 있다는 등의 어떤 중요한 정보를 통제하는 프레임에 의해 ‘코끼리’는 정의된다. 이처럼 모든 단어가 특정 프레임에 의하여 정의된다는 사실이 시사하듯, 특정한 프레임을 부정하려면, 우리는 먼저 그 프레임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일찍이 리처드 닉슨은 그 진리를 통감한 바 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고 사임 압력을 받고 있을 무렵 그는 TV에 나와 전 국민을 향해 “저는 사기꾼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는데, 그 순간 모든 국민은 그를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이 일화는 상대방에 반대하는 주장을 펼치려면 상대방의 언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프레임 구성의 기본 원칙을 가르쳐준다. 상대방 언어는 어떤 프레임을 끌고 옴으로써 우리를 자신들의 세계관으로 끌고 들어가는 뗏을 놓는데, 이것이 프레임 형성의 핵심인 것이다. 프레임을 짜는 일은 자신의 세계관에 부합하는 언어를 취합하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언어가 아니다. 본질은 그 안에 있는 생각이다. 언어는 그런 생각을 실어나르고 환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나>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말했다. 존재라고 하는, 손끝에 닿으면서도 결코 잡히지 않는 “날 것 그대로인 실재”를 나름 구체적 형상으로 감지케 하는 것, 무상(無常)한 존재의 질감과 무늬를 어렴풋하게나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언어의 매개적 역할이라고 본 것이다. 그것이 물질이든 비물질이든, 모든 사물이 언어를 통하지 않고는 존재에 이르지 못한다고 본 그의 통찰은, 사물로 가득 찬 세계에 대한 인식이 얼마든지 주관적으로 가공될 수 있다는 사실과 연결된다.

사물은 분명 언어 이전에 존재하지만 나에게 유의미한 존재로 다가오려면 인식 행위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언어이다. 언어를 통해 우리는 상황과 사건을 개념화하고, 이렇게 개념화된 상황과 사건은 소리와 문자를 통해 기호의 형태를 띤다. 이런 기호화 과정은 어휘 체계와 문법 체계를 통해 우리가 사용하는 구체적인 언어 표현으로 구현되는 것이다. 이 언어의 구성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화자가 그 상황과 사건에 대하여 갖는 입장이나 평가가 반영된다.

문제는 화자가 자신의 욕망에 기초하여 구성한 소위 현실이 객관적 실재의 상황과 어긋날 때이다. 가령, 나치 정권이 완곡어법의 상투어를 통해 유대인 학살을 ‘최종 해결책’, ‘완전 소개*’, ‘특별 취급’ 등으로 부름으로써 사람들이 유대인 학살과 관련한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세뇌한 것이 그러한 경우이다. 이처럼 욕망의 언어는 매우 자기중심적이어서 욕망의 주체만을 위무(慰撫)할 뿐 타자의 얼굴을 결코 볼 수 없게 한다. 그것은 실체적 진실을 떠난 무의미한 기호임에도 그 기호 속에 왜곡된 욕망을 끊임 없이 삽입하고 타자에게 왜곡을 강요하는 문제를 낳는다.

* 소개(疏開): 한곳에 집중된 주민·시설 등을 분산시킴.

<다>

나는 정유년 4월 초하룻날 서울 의금부에서 풀려났다. 내가 받은 문초의 내용은 무의미했다. 위관들의 심문은 결국 아무것도 묻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헛것을 쫓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언어가 가없었다. 그들은 헛것을 정밀하게 짜 맞추어 충(忠)과 의(義)의 구조물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그들은 바다의 사실에 입각해 있지 않았다. 형틀에 묶여서 나는 허깨비를 마주 대하고 있었다. 내 몸을 으깨는 헛것들의 매는

깨어지듯이 아프고 깊었다. 나는 헛것의 무내용함과 눈앞에 절벽을 몰아세우는 때의 고통 사이에서 여러 번 실신했다. (...) 나는 조선 수군 연합 함대가 칠천량에서 전멸되었다는 소식을 도원수 권율에게서 들었다. (...) 체포되기 몇 달 전인 병신년 초겨울 나는 한산 통제영에서 그를 대면한 적이 있었다. (...) 조정에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가토 기요마사의 부대가 곧 바다를 건너서 부산으로 진공하게 되어 있는데, 함대를 이끌고 부산 해역으로 나아가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적을 요격해서 가토의 머리를 조정으로 보내라고, 그때 그는 나에게 말했었다. (...) 나는 그때 다만, 현장 지휘관의 판단을 존중해 주십시오, 라고만 대답했다. 그는 서둘러 돌아갔고 나는 함대를 움직이지 않았다. (...) 겨울 바다는 물결이 높았다. 그 물결 높은 바다 위에서 며칠이고 진(陳)을 펼치고 언제 올지 모르는 적을 기다린다는 것은 자살이나 다름없었다. 조정은 작전 전체의 승패보다도 가토의 머리를 간절하게 원했다. 가토는 임진년 출병의 제1진이었다. 가토의 부대는 한나절 만에 부산성을 깨뜨리고, 꽃놀이 가는 봄나들이 차림으로 가마 대열을 꾸며 북으로 올라갔다. 붙잡힌 조선 백성들이 그 가마를 메었다. 임금은 가토의 부대에 쫓겨 의주까지 달아났었다. 임금은 가토의 머리에 걸린 정치적 상징성을 목말라 했다. 임금은 진실로 종묘사직 제단 위에 가토의 머리를 바치고 술 한잔을 따르고 싶었을 것이다. 나는 정치적 상징성과 나의 군사를 바꿀 수는 없었다. (...) 나는 즉각 기소되었다. (...) 서울 의금부 형틀에 묶여 있을 때, 임금의 형장(刑杖)은 몸을 가득 채우며 파고들었다. (...) 나를 심문하는 위관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가 부산 왜영을 불태운 사실을 조정에 허위 보고하였느냐?”, “네가 적을 뺨히 보고도 군사를 몰아가 토벌하지 않고, 바다를 건너오는 가토를 요격하지 않은 의도가 무엇이냐?”, “너는 누구의 군대냐? 너는 가토의 군대냐?”, “너는 왜 싸울 때마다 원군의 뒤를 따라다녔느냐?”, “네가 군공을 속여 보고한 것은 무장으로서 임금을 능멸하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 아니냐?”, “신하로서 임금을 속인 자는 마땅히 죽인다. 아느냐?”, “전하께서는 내가 이제 가토의 머리를 들고 온다 하더라도 용서해 줄 수 없다고 하셨다. 내가 참으로 무장이라면, 사직 앞에 죄를 고하고 밝게 죽는 편이 어떠하냐?” 혼절과 혼절 사이에서 나는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었다. 위관의 질문은 답변을 미리 예비하고 있었으므로 나는 아무것도 답변할 수 없었다. 위관은 집요했으나, 아무것도 묻고 있지 않았다. 아마도 거기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임금뿐이었다.

2-1. <가>와 <나>에서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이해하는 방식의 공통점을 기술하십시오. (300±30자)

2-2. <나>의 논지를 활용하여 <다>의 ‘그들의 언어’에 대해 비판하십시오. (600±60자)